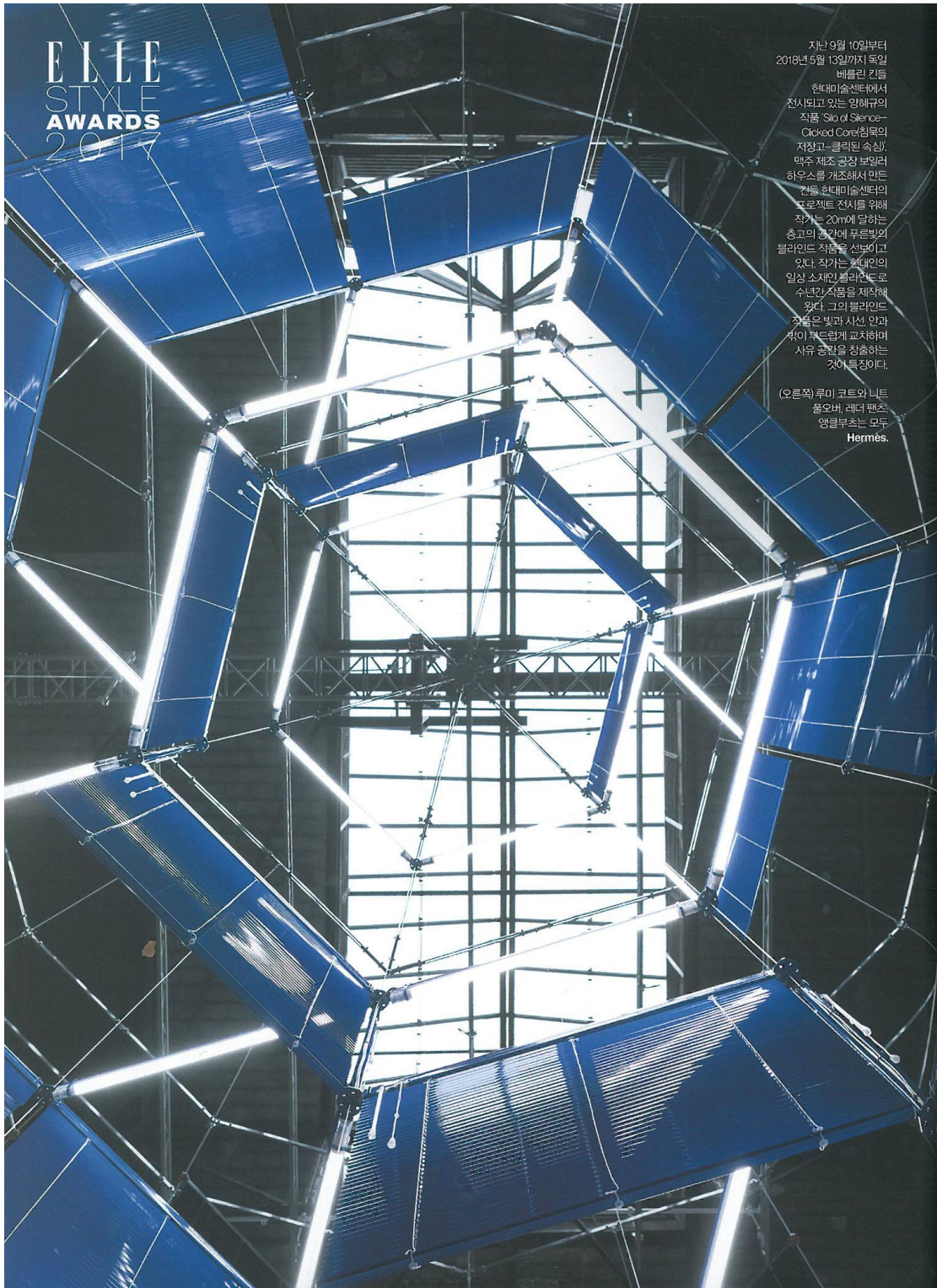


OUTSTANDING ARTIST YANG HAE GUE

November, 201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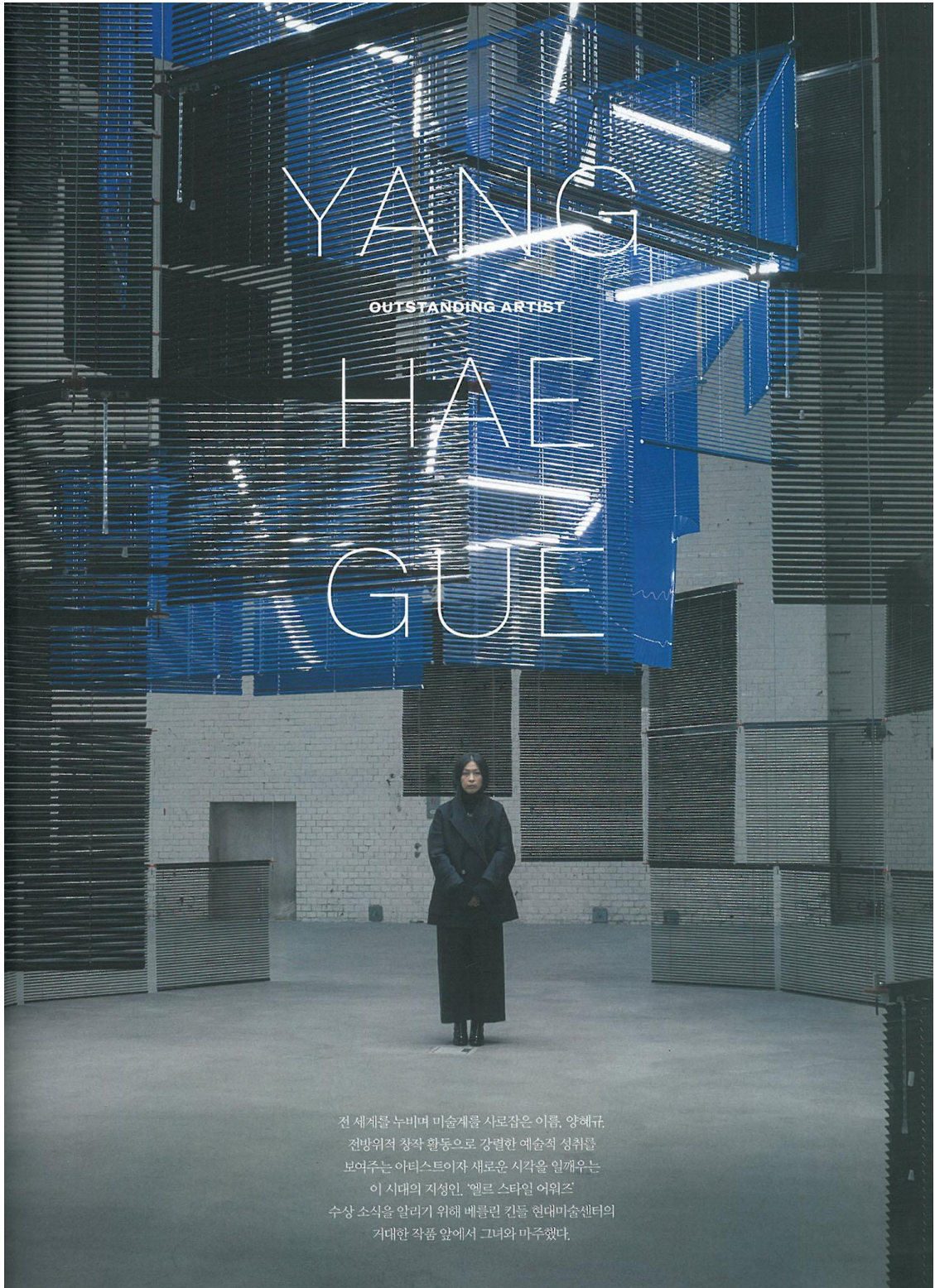
page 1 of 4



ELLE
STYLE
AWARDS
2017

지난 9월 10일부터
2018년 5월 13일까지 독일
베를린 칸들
현대미술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양해규의
작품 'Silo of Silence-
Clicked Core(침묵의
저장고-클릭된 속심)
역주 제2공장 보일러
하우스를 개조해서 만든
공간 현대미술센터의
프로젝트 전시를 위해
작가는 20m에 달하는
층고의 공간에 푸른빛의
블라인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작가는 현대인의
일상 소재인 블라인드로
수년간 작품을 제작해
왔다. 그의 블라인드
작품은 빛과 사선, 안과
밖이 부드럽게 교차하며
사유 공간을 창출하는
것이 특징이다.

(오른쪽) 루미 코트와 닛트
폴오버, 레더 팬츠,
앵클부츠는 모두
Hermès.



전 세계를 누비며 미술계를 사로잡은 이름, 양혜규.
진방위적 창작 활동으로 강렬한 예술적 성취를
보여주는 아티스트이자 새로운 시각을 일깨우는
이 시대의 지성인. '엘르 스타일 어워즈'
수상 소식을 알리기 위해 배를 탄 길을 현대미술센터의
거대한 작품 앞에서 그녀와 마주했다.

양혜규

전 세계의 넓은 공간마다 자신의 작품을 세운다는 것은 작가로서 어떤 의미인가 원래 작가에게 정물병이 기질이 있다. 장소는 데 내가 기어지, 장이 날 따라다니는 건 아니니까, 작업 경향이 몰장적이고 조각적이다 보니 재밌은 기분이고,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 저등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까지 파악해야 작업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도시의 감성적인 부분까지 읽어내야 한다. 에너지가 많을 때는 열린 상태로 이것저것 모든 면을 다 받아보는 게 너무 좋는데, 에너지가 적을 때는 그것처럼 피로한 것도 없다. **독일을 기반으로 한 디아스포라의 삶이 양혜규라는 작가의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변화시켰나** 실제로는 것 안에서 어떤 한 사람의 '보여지는 아이덴티티'라는 것, 거기에 얼마만큼은 위면(face)이 있는지만, 안으로 어떻게 나타내는지로 이해하는 것이다.

작가로서 외연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총위, 즉 어떤 빛이 프리즘을 통과해 아주 많은 빛을 반사하면서 여러 색을 내고 영동해지기도 하는... 그런 내러티브를 만들어내는 것. 인생에서 알게 되는 지혜, 그 안에서 융해되는 것, 작가들에게 아이덴티티라는 건 재료이기도 하고 대상이기도 하고 최종 목표이기도 하고 연민의 대상이기도 하다. **세계적 권위의 미술상인 볼프강 한 미술상 수상자로, 아시아 여성 작가로는 최초로 선정됐다. 스스로에게 주고 싶은 또 다른 상이 있다면 은퇴(웃음). 작가의 은퇴를 잘 못 한다. 현재 작가의 가장 존재론적인 레디컬함은 은퇴일 거다. 한국 안에서 할 수 있는 고도의 상상력은 통일이고, 그런 개인을 넘어 시대와 지역이란 관점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고도의 상상력을 필요로 하는 일일 텐데, 작가에게 은퇴가 상상력의 끝을 보여주는, 극단적인 상상이기도 한데, 인연에 죽음이라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한다. 그럴 싶지도 하는 것보다 그럴 상상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동반자이자 목격자인 관망객과의 소통에서 진정성이 담겨 있음을 확인하게 된 계기가 있는지** 사실 진정성은 잘 모르겠다. 작가는 관대 비슷한 작업이라... 과학자나 학자 같은 사람들은 진실이나 사실 같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인데, 실용미술 하는 사람들은 현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꼭 그게 진실이 아니어도 된다. 아주 소박한 그림자도 아주 화려한 빛이든 간에 눈에 들어오는 걸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게 작가의 빛이고 문명이고 언어이기 때문에 나빠져서 오히려 원가 하려고 하면 그런 반칙이고 비합리한 거거든. 그래서 일종의 자각자성이 있는데, 자각자성뿐 아니라 기질 정도의 연인원이 있다면 그 연인원을 감당할 수 있을 용기도 필요하다. 사람들이 미술과 문화가 다른 점을 자주 헷갈려 하는 것 같다. 미술은 솔직히 기민하기도 하고 용기 없을 때도 많다. 교과서적이거나 사람에게 잘감히 다가갈 수 없는 게 맞다. **예술가라는 직업에 대한 개인적인 소회** 너무 힘들 텐데 내려놓고 도망가고 싶다. 그것도 작가적 욕망인 것 같다. 작가들은 집되면 회의가 침하게 온다. 객관적으로 칭찬하고 했을 때 가장 그만두고 싶고, 원가 잘못 된 것 같다. 회의를 잘하는 거,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다. 본인도 헛갈리니까, 자유롭고 싶어서 작가 생활을 선택했는데, 일이 잘못되는 건 덜 자유롭다는 거거든. 자유를 표현해야 하고 자유를 임보대(embed)해야 하는데, 자유를 구현하기 위해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아이러니.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르겠다. **요즘 스스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여기는지** 나는 90년대적인 작가다. 내가 데뷔한 90년대는 세상이막, 글로벌화되던 때였고, 영국 미술 신에는 영국 작가만, 독일 신에는 독일 작가만 있었으니까, 물론 교류전 같은 게 있던 했지만, 소위 '인터네셔널 신'이라는 게 없었다. 작가가 어떤 세대에 속하던 그 세대 작가들은 그 시대의 표출이고, 거기에 충실하게 일한다. 지금은 2017년, 시대가 바뀌는 게 느껴진다. 이 시대를 읽고 싶고, 이해하고 싶다. 그 피도를 완전히 잘 탈 수는 없다. 다만 어느 정도는 리스폰드를 하고 싶은 거다. '동시대'라는 건 연개 같은 거라서, 너무 기깝기 때문에 포커스가 안 맞춰지는 것과 같다. 역사적인 것이 되면**

클리어해지지만 동시대작가들은 너무 가까워서 포커스가 안 맞는데 공기 중에 있는 것들을 집어서, 이미 다 느끼고 읽고 있는 것들을 아주 영연하게 보여주는 거거든. 동시대를 살면서 다가오는 시대가 막 달라지는 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관심이 없을 수 있을까. 다시 한 번 집중해서 시대를 읽고 싶다. **최근 오감을 작동시키는 '자유 공간'이라 할 만한 곳이 있다면** 최근 유라시아에 관심 있어서 실크로드 트립을 갔던 유라시아라는 개념이 고대엔 굉장히 중요했는데, 근대라는 걸 겪으면서 유라시아라는 개념이 유명무실해졌던 것. 그런데 지금 고대와 현대가 무뎠지면서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것들을 차원으로 이해하고 싶다. 시대를 꿰고 싶고, 예술가들은 차대를 꿰놓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욕심이 안 날 수가 없었다. 누구는 어떤 책에서 이렇게 말하더라. '이런 새로운 경향들은 새로운 경향들이 아니라, 정상화에 가깝다.' 지금 나로서는 그런 감각을 느껴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 전사나 미술, 이런 칸막이적인 생각보다... **2018, 2019년 대규모 회고전이 있는데 이를 전시에 기대감이 있던 회고전의 경우** 한 전시에 적어도 100점 이상을 올린다. 1984년부터 2017년까지를 망라하는 거다가 전 세계에서 작품을 다 빌려와야 되고, 예를 들면 이번 칸을 전시는 프로젝트 성격이니까 한 점의 작품을 한 전사를 구성해서, 전체 내가 와 있는 위치라든지 어떤 한 토끼 같은 걸 보여준다면, 2018년과 2019년에 예정된 두 개의 회고전은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다. 리스처나 재배의 강도가 굉장히 높다. '기을 보여주는 식의 전사'가 아니다. 25년 동안 작가가 했던 작업을 다 보여주고, 어떻게 보면 좀 섹터할 수 있지만, 제대로 된 모노그라피가 나와야 되는 것. 볼프강스튜디오를 클라식하고 좀 보수적으로 보일지라도, 안 해본 작업이라고 것도 재밌었다. 계속 생각하는 작업이기도 하고, **국제 무대를 준비는 동안 '여성'이란 정체성은 본인에게 어떻게 작용했을까** 아마 오기 같은 게 없이 많이 작용했을 것이다. 전시 스케일이 커지다 보면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협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자 작가라면 알집이거든요. 몇 마더에 기선을 잡지 않으면 일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읽고 노력하고, 그렇게 20년을 하다 보니 실제로 잘 알게 되더라. 항상 난 부족하다고, 몰도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경험'이라는 게 사람을 이렇게 바꾸어줄 수 있는 거구나' 하고 놀랐다. 여태까지 겪어오고 전시했던 모든 게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90년대 한국 출신 여성 작가로서 해외에서 활동하면서 기졌던 약한 의의식, 그런 범명 다치기 쉬운 것이었지만, 그 때문에 또 다른 강함과 지라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 모든 것이 오히려 값있는 얘기를 하고 싶다. **20대, '이전 해볼 걸' 하며 후회하는 게 있는지** 20대를 무척하게 보낸 것 같다. 23세 때 독일로 유학 와서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경험했는데, 뒤늦게 하면서 후회했었다. '좀 더 일찍 일할 걸' 하고. 예때들이 가진 인생 경험이라 너무 많은 반면, 너무나 무어애같이 보이더라. 지존심이 정말 상했던 기억이 있다. 좀 더 긍정적으로 '인생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젊은 사람들 스스로 자신의 일이나 경험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도 있을 것 같다. **지금의 스타일더스트 예술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은** 좀 로맨틱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어떻게 회복할지 방법론은 모르겠는데, 어떤 것에도 작업에 관련된 일도 아닌데 로맨틱하게 생각하는 것,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중요하다. 지금의 나로, 그렇게 일하고 싶고 노력하는 편이다. 지금 20대는 모든 것이 더 자유롭고, 주도도 훨씬 덜 들어 보이는데도 몰입이 안된다면 어떤 프로젝트에서 있어서 로맨틱해지는 걸 너무 더 어려워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블랙에 가까운 다크 블루
니트 풀오버와 레더 팬츠,
네크리스는 모두
Hermès.

'동시대'라는 건 정말 안개
같은 거라서, 너무 가깝기
때문에 포커스가 안
맞춰지는 것과 같다.
동시대를 살면서 다가오는
시대가 막 달라지는 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관심이
없을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집중해서
시대를 읽고 싶다.

PHOTOGRAPHER: MICHELLE SESPLOTT/STUDIO CHANGSUN | ONLINE PRODUCTION: KIM RYEE/LEADLOCATION | INDOORHERMES: 6923

